

윤장현 “검찰조사 불공정” 조사 날인 거부

윤 전 시장 측 “공천 쪽 물고 가 실제적 진실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 “휴대폰 폐기하라” 사기범 김모 여인 문자 공개...증거 인멸 제안 정황 검찰 “공천 염두 둔 행위”...공소시효 고려해 기소 여부 오늘까지 결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가짜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에 대해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도, 검찰 조서에 는 끝내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권 여사 사칭범 김모(여·50·구수)씨에게 뜯긴 4억 5000만원을 ‘공천 대가’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김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천”이란 표현은 없지만, 공천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 자

녀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아 각각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사립중학교에 채용청탁 한 점(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노로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김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시장님 전하기 본체를 바꾸셨으면 한다. 만일 (수사기관이)회수해 복구한다면 몇가지 우려스

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 시장님께서 지금 기억하지 못하신것 같은데 문자로 얘기하신 내용이 있다. 휴대폰 본체 바꾸시고 폐기하라, 더 이상 피해를 입으시면 안되신다’,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자 가계, 차 등 처분할 것은 처분정리하고 있다. 저희가 소통한 것을 변호사가 안다면 바로 경찰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며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제안한 정황이 남아있다.

그녀는 또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혜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그들이 시장님께 어떤 회유를 했는지(직접 만나서)듣고자 했다. 시장님께서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 ‘전남지방청, 공천쪽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한다. 제가(경찰에)잡혀갔을 때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저는 부인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등을 모

두 확인하고도, 검찰과 달리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공천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적 대가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장한 ‘공천을 염두에 둔 수사’라는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경찰이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김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구속을 앞둔)사기범의 말이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이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피의자 진술을 채택할 수 없다는 정도의 효과다. 윤 전 시장측의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소여부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13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인에게 빌린 1억원 관련 수사 등은 추가로 이어갈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 목포시장 부인 10억대 금품 도난 신고 사학 법인 이사장인 아들 절도 혐의 조사

열쇠공 데리고 들어간 장면 CCTV에 찍혀...본인은 부인

지난달 말 목포의 유명 사학재단 설립자(작고) 부인이 홀로 살고 있는 저택에 도둑이 들어 10억원대 귀중품이 탈린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큰아들이 아무도 없는 어머니 집에 열쇠공을 데리고 들어간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그의 아들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큰아들은 “금고를 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목포의 모 학교법인 설립자의 부인 A씨는 지난달 29일 목원동 자신의 집 안방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귀중품들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딸 집에 50일 정도 머물다가 귀가했는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억원을 포함해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kg짜리 골드바 6개, 고급 외제시계 등 시가 10억원

이상의 귀중품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큰아들이 자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가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열쇠공을 대동한 채 학교법인 관계자와 집을 방문해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를 퇴근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시간쯤 뒤 열쇠공이 금고가 있던 안방 출입문 자물쇠를 열어주고 집을 빠져나간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B씨를 추궁했지만 B씨는 절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학교법인 가족들 간에는 크고 작은 민사소송도 여러 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사학재단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인사는 “2016년 10월 목포시장을 지낸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가 집안이 모자간, 형제간 돈 다툼을 벌이는 듯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달계약한 물품보다 고품질 납품했더라도 대법 “임의로 바꾸면 부정 행위”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의자보다 품질이 더 좋은 의자를 납품했더라도 조달절차의 협의를 없었던 계약위반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입찰 자격까지 제한하는 처분은 지나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H사는 2014년 7월 정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 지원을 받는 여러 지자체에 관광용 의자 100석을 개당 33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과 맺었다. 납품할 의자는 H사가 특허를 받은 단가 35만원의 접이식 의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H사가 제조하는 다른 고급의자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고, H사가 이를 받아들여 단가 40만원의 의자를 각 지자체에 납품했다.

이에 조달청이 조달물품으로 결정된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를 납품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리자 H사가 소송을 냈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대입 지원전략 설명회 관심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열린 '2019학년도 수능분석 및 대입지원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수도권 주요대학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기간제 부당해고 구제 처리기간 30일로 대폭 단축

전남지노위 신속구제 방안 마련

광주·전남 지역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처리기간이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공익·노사위원 간담회, 노동법 전문가 검

토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신속구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노위는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판정문 작성기간을 1주 이내로 단축해 구제 신청부터 판정까지 90여일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30여 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간제근로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분의 임금상당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금전보상 판정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합평군 35억 주고 산 추사 작품 감정 의뢰 고미술협회 “80점 중 33점 위작”

군, 매매계약 파기·손배소 검토

합평군이 거액을 주고 산 추사 김정희 작품 중 일부가 위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합평군에 따르면 2015년 합평 출신 고미술 수집가인 A씨로부터 30점을 35억원에 사들이고, 50점은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그러나 위작 논란이 일면서 합평군이 지난달 22일 공인감정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감정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80점 중 33점이 위작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작으로 판단한 작품 중 현판 등 10여 점은 합평군이 35억원에 매입한 작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미술협회 감정위원들은 만장일치로 33점에 대해 위작 판단을 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작품을 기증한 A씨는 3년 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이 이뤄졌는데 이번 협회 감정은 신뢰할 수 없어 재감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최종 문서 통보를 받으면, 매매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합평·황은학 기자 hwang@

‘음주운전 사망사고’ 배우 박혜미씨 남편 결국 감옥행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배우 박혜미씨의 남편 황민(45)씨가 결국 감옥행.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제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황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내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 등 동승자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다쳤는데, 재판부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